



## 세계를 품는 아이들

### 성장통(成長痛)

아이들은 빨리 자라기 때문에 독특한 병을 앓는다. 바로 '성장통'이다. 성장통의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예측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뼈가 자라는 속도를 주위 조직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직과 뼈가 함께 자라야 하는데 뼈가 먼저 자라 주변의 근육이 아픈 것이다. 낮에는 멀쩡히 잘 놀던 아이가 저녁이 되거나 잠자리에 누우면 무릎 부근이나 넓적다리 등에 통증을 느끼고, 다음날이 되면 다시 멀쩡해진다. 이러한 성장통은 대부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만일 일정 기간이 지났는데도 통증이 계속될 경우에는 다른 증상을 의심해보아야 한다. 소아 류마티스나 관절염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하다.

한국교회도 성장통을 앓고 있다. 한국교회에 수적 부흥이 있었다. 많은 교회들이 생겼고, 아름다운 예배당이 지어졌다. 교회는 점점 대형화되었고 양적 팽창에 치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성장주의와 기복주의 신앙이 그 뒤를 따랐다. 이러한 분위기는 한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과 맞물려 교회 공동체와 예배에 영향을 끼쳤다. 삶이 윤택해진 성도들의 편익이 중요시되고, 그들은 '서비스(service, 예배)'를 받는 데 익숙해졌다. 성도들이 편리한 신앙생활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 강단에서 전해지던 자기희생, 섬김, 봉사, 헌신 등은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 되면서 점점 그 소리가 작아졌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아파하고 있다. 양적 물적으로 팽창한 만큼 성숙한 성장을 이루고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깊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성장통 정도가 아니라 성장통을 가장한 류머티스나 관절염에 걸렸다고

이야기한다. 한국교회는 지금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한때 활화산처럼 타올랐던 한국교회의 '선교'마저 성장주의 끝자락에 놓여 커다란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 예수님의 지상명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예수님은 공생애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놀라운 사건 후에, 예수님은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위대한 마지막 명령을 내리셨다. 이 명령을 우리는 '선교명령' 혹은 '지상명령'이라고 말한다. 명령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명령이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유대인에게서 헬라인에게로,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로 확장시켰다. 그러나 이 명령을 따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기희생이 필요하고 많은 헌신과 재정이 요구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명령을 따르다가 순교자가 되기도 했다. '선교명령'을 따르는 것은 굉장한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공통의 명령이고, 반드시 지켜야 할 왕의 명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가르쳐야 하고, 그 명령을 수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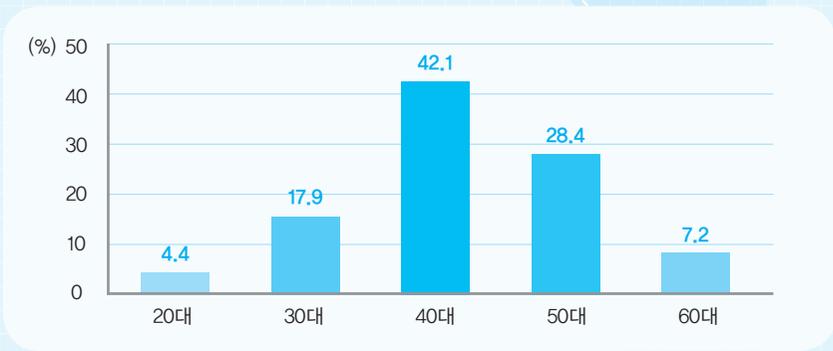
## 왜 선교를 가르쳐야 하는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함이다. 선교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명령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전해야 한다.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선교를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사는 것'은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

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라는 적극적인 명령인 것이다. 선교명령에 대해 책임감을 못 느끼는 사람은 절대로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반드시 선교를 가르쳐야 한다.

**두 번째, 훈련시키기 위함이다.** 교회는 오랫동안 혹은 제대로 강조하여 선교를 가르치지 않았다. 많은 훈련 과정에서 선교는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아니었다. 아이들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청년이 되었을 때쯤 펼쳐보아야 할 과정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 방법을 달리하면 충분히 선교를 가르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선교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선교를 가르쳐야 한다.

**세 번째, 교회의 미래를 위함이다.** 선교는 당장의 열매를 기대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10년 혹은 20년 후에 맺게 될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다. 한국선교연구원에서 국내 각 교단의 선교부와 선교 단체를 대상으로 선교 현황에 대해 설문 조사를 했다.



2012년 기준 파송 선교사 19,798명을 대상으로 집계함.

위의 표를 살펴보면, 40대 이상이 전체 선교사의 77.7퍼센트 차지하고 2, 30대가 22.3퍼센트에 불과한 것을 볼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교회학교에서 선교와 헌신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이 줄어들었고, 경기 침체로 교회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선교 헌금을 먼저 줄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10년, 혹은 20년 후의 선교사를 세우기 위해, 교회의 미래를 위해, 오늘 우리는 선교를 가르쳐야 한다. 농부가 심은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듯, 주일학교에서 선교를 가르쳐 열매를 거두기까지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날 것이다.

### 어떻게 선교를 가르쳐야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선교를 가르쳐야 하는가? 선교를 가르치는 것은 발달 단계에 따라 방법을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연령대	내용
학령전(7세 미만)	하나님이 세상 모든 아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개념을 가르침.
저학년(1~3학년)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함으로써 선교지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함.
고학년(4~6학년)	직접 선교지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줌.

먼저 학령전 아이들의 세계는 ‘지금’, ‘여기’에 갇혀 있다. ‘먼 나라’, ‘이 다음’의 사고를 하기 어렵은 것이다. 때문에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상 모든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학령기 아이들에게는 좀 더 구체적인 선교를 가르칠 수 있다. 저학년 아이들은 지리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나라 아이들에 대한 궁금증을 갖는다. 그래서 선교지의 의상이나 음식 등의 문화를 소개함으로써 아이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고학년 아이들을 위해서는 선교사를 초청해 선교지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거나, 선교지의 아이들과 결연을 맺어 편지나 사진 그리고 선물 등을 보내게 할 수 있다. 또한 단기로 직접 선교지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줌으로써 좀 더 적극적으로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에 그쳐서는 안 되며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과,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그리스도인 모두를 향한 것이고, 그 일을 위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야 함을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품은 어린이로서, 지금부터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도록 훈련시킬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세계를 품는 아이들

#### • 주제

우리는 이땅의 축복의 통로로서 복음 증거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알고, 자신과 교회의 성숙과 부르심의 순종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

#### • 중심 성경 구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1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행 9:1-22)를 통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듯이, 나를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시고 계심을 배울 것이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2과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요**(행 11:19-26)를 통해, 아이들은 복음 전도자들이 함께 모인 교회의 모습을 배울 것이다.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바른 말씀을 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배운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될 것이다.

**3과 세계를 품은 어린이로 살아요**(행 13:1-3, 42-49)를 통해, 아이들은 선교적인 삶에 대해 배울 것이다. 세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 때까지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야 하며, 부르심을 받은 내가 ‘가는 선교사’ 또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함을 알게 될 것이다. 아이들은 지금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와 헌금을 통해 선교해야 함을 깨닫게 될 것이며, 그 가운데 가는 선교사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아이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 성장통을 지나 온전한 성장으로

아이들의 성장통은 일시적인 것이다. 만약 뼈와 조직의 성장 속도가 계속 다르다면 아이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뼈 주위의 조직을 자극해 뼈의 성장 속도와 균형을 맞추어준다면 아이의 고통은 멎고, 온전한 어른으로 자라게 될 것이다.

성장통보다 더한 성장 후유증을 앓고 있는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한국교회의 성장통은 계속될 것이다.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듯 교회의 성숙은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손해를 보는 것이며, 하나님나라를 위해 사람과 비용과 최선으로 섬기는 것이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는 아이들에게 선교를 가르칠 것이다. 10년, 20년 후에 맺게 될 열매를 상상하며,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이 가르침이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고 아이들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성장통을 이겨낸 한국교회와 건강한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소원한다.**

파이디온선교회 대표

고종철 목사